

[보도자료]

오가논, 출범 2주년 맞아 ESG 보고서 발간 ‘여성건강 혁신’ 비전 실현 위한 주요 활동 공유

- 전 세계 여성의 더 건강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방향 및 주요 성과 공유
- 한국오가논, ESG TF 팀 구성해 국내 여성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 위한 다채로운 활동 이어가



서울, 2023년 7월 6일 – 여성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오가논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며 '2022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지난 27일(현지 기준)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가논 ESG 경영의 토대인 'Her Promise(여성의 잠재력 확대)'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2021년 6월 출범 이후, 2022년 발간된 첫 보고서를 기점으로 ESG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한 오가논은 그동안 의료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성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공개된 두 번째 보고서에 담긴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출범 후 여성건강 혁신이라는 비전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충족 요구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하는 등 총 8건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했다.

- ‘Her Promis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5,700 만 건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써 2030 년까지 1 억 2,000 만 건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한다는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
- 3,000 만 달러(한화 약 390 억원) 규모의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Her Plan is Her Power’**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중저소득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쳐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자 3 년 동안 각 지역에 맞는 솔루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작년 9 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인식과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지원 공동사업인 ‘세이프루언서’를 추진하며 전국 26 개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 여성 리더를 늘리고, 오가는 내 규모가 큰 자회사들에서 임직원 대상 임금 평등 연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급 업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다양성 향상을 목표로 두어, 여성이 이끄는 기업을 포함해 이에 부합되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지출을 25%까지 확대했다. 한국오가는도 바람직한 사내문화 형성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TF팀인 OCC(Organon Culture Creator)를 통해 소통과 문화, 동반성장에 대한 여러 사내 활동들을 진행하고, 리더십 향상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 에너지 절약, 폐기물 활용, 수자원 절감 등 **주요 환경 목표에서 진전**을 이뤘다. 한국오가는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서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재를 친환경 재질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기 절약과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줄이는 ‘탄소가논(None)’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사내 장터인 ‘오가는 마켓’을 상시 운영하며 환경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오가는은 출범 이후 다양한 부서 소속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ESG TF(태스크포스) 팀을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약속(E, 환경)’,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S, 사회)’, ‘신뢰받는 기업을 위한 약속(G, 회사지배구조)’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장단기 계획들을 세우며 ESG 실천을 중요한 사내문화로 정착시켜왔다. 설문조사와 웹사이트상의 담론 분석을 통해 국내 여성들의 여성건강 인식과 미충족 요구를 파악했으며,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심포지엄과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했다. 또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 등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과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다.

케빈 알리(Kevin Ali) 오가는 CEO는 “전 세계 40억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이 바로 오가는이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비전을 향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오가는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여성의 의료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이끌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등 ESG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왔다. 오가논의 더 나은,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활동들로 만들어낸 진전과 유의미한 영향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오가논의 ESG 전략과 목표, 관련 활동들이 담긴 이번 2022 ESG 보고서는 한국오가논 공식 홈페이지(organon.com/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